

2) 요셉이 야곱에게 약속하다(47:27-31)

27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28 야곱이 애굽 땅에 십칠 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백사십칠 세라
 29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 47:27-28/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과 개인 야곱이 애굽에 거주한 일을 개괄적으로 서술.
 - 이 나라의 조상인 야곱의 중요성 강조.
 -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창세기의 복 주제를 표현 - 이방 땅에 거했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심.
 - 훗날 이스라엘의 고난의 원인이 됨.
 - '십칠 년을 거주하였으니': 요셉이 17세 때에 있었던 일을 연상케 함 - 과거의 회상과 미래의 예견.
 - '그의 나이가 백사십 칠 세라': 야곱의 사망 기사보다 그의 임종시 나이를 먼저 언급
 - 야곱의 운명은 애굽 땅에 있지 않았음을 암시.
- 47:29-31/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맹세 의식에 사용된 언어 - 자신이 요셉의 호의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
 -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들과 가진 결속을 강조하며 친족에 대한 열의를 시사.
 -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맹세하니': 요셉의 간청에 지체없이 응하는 요셉.
 -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요셉인지에 대한 번역상의 혼란.
 - 요셉에게 호의를 구했던 야곱의 태도와 요셉이 꾸었던 꿈을 고려하면 요셉에게 절한 것으로 해석도 가능.

11. 야곱의 축복(48:1-49:28)

1)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다(48:1-22)

1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2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3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4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5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6 이들 후의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7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 곳은 에브라트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트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트는 곧 베들레헴이라)

- 48:1-2/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죽어 가는 족장이 축복을 베푸는 것은 변경이 불가능한 권위를 가짐(24, 27장).
 -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기 두 아들의 축복을 요구.
 - '야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의 요구를 알고 의도적으로 힘을 새롭게 내는 야곱.
 - "야곱은 아파 누웠고, 이스라엘은 일어났다".
- 48:3-4/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 자신이 받은 은혜를 회상하며 축복을 베풀 권한이 있음을 밝힘.
 -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회상의 초점은 야곱이 요셉에게 베풀 축복으로 기대되는 후손의 약속.
 -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왕좌의 축복은 유다의 후손에게로 유보.
 -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일시적인 소유지인 애굽과 대조.
- 48:5-7/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요셉의 아들들을 상속 적격자로 삼음.
 - '내 것이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새로운 신분을 강화.
 - '이들 후의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입양은 요셉의 두 아들만. 형들의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라헬이... 죽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여 라헬의 지파의 수를 늘림으로 라헬을 애도.
 -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미래는 가나안 땅에 있음.

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9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10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11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12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 48:8-9/ '이들은 누구냐': 야곱은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알고 있음.

-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 또는 축복의 서두로 던진 질문, 또는 앞선 시기에 이뤄진 대화일 수 있음.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들들이 가나안의 경계를 넘어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

- 48:10/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야곱이 이삭을 죽인 것을 떠올림-그러나 여기에는 속임수가 없음

- 요셉과 젊은 시절 야곱을 대비.

- 48:11-12/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도 못하였더니':

- 야곱은 라헬의 아들들을 잃자 죽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음.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무릎은 출생과 혈통을 암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요셉의 꿈을 뒤집어 놓은 것-하나님의 약속을 중재하는 아버지의 우월함을 인정.

13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14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엮바꾸어 얹었더라

15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옵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 48:13-14/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함.

'이스라엘이... 팔을 엮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은 관례를 바꾸어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

- 48:15/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한 축복이지만 계보를 연결한 요셉을 강조.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걸었던) 하나님': 가족의 영적 유산에 초점.

- 목자 앞에서 걷는 양, 양 떼를 몰면서 보살피는 목자의 이미지.

- '걸었다'는 '내 앞에서 걷고 흠이 없으리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반영(17:1).

-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신에게 보이신 목자되신 하나님의 인내의 보살핌을 묘사.

- 양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의 이미지.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지 않았음.

- 48:16/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천사'로 묘사.

- 가나안에서 유배되는 경험에서 천사의 역할을 염두. 라반에게 경고한 것을 함의.

- 모세 공동체는 자신들이 섬기는 구속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 야곱을 구원했던 주님이었음을 인식.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

- 그들의 애굽 출신임에도 '이스라엘'의 아들들로서 선조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수신자임을 확인.

- '므낫세(있다)'라는 이름과 대조.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에브라임(갑절로 생육한)'의 이름에 부합.

17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8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이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20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 48:17-19/ '요셉이... 보고(라아) 기뻐하지 아니하여(악하게 보았다)': 앞 못보는 야곱의 경건한 통찰력을 요셉과 대조.
'웁기고자 하여(장악하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장악하다'- 강압적인 행동과 감정이 섞인 부정.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단호한 대답. 자신이 겪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을 확인.
- 48:20/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요셉'을 가리킴. 요셉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축복의 수혜자가 된 것.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요셉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후손의 선망의 대상이 됨.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하나님/야곱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인정.

2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22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 48:21-22/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가족을 보살필 계승자로 요셉을 준비시킴.
- 자신이 시험을 통해 깨달은 것과 요셉이 이미 체험한 신앙 고백.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자신의 유골에 대한 요셉의 유언의 근거.
'내가 네게...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의 증거로 직접 땅의 일부를 물려줌.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세겜은 하물에게서 매입한 땅(창 33:19). 어떤 전쟁을 언급하는 것인지 불확실.

2)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다(49:1-28)

1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 49:1-2/ '너희는 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권고와 함께 예언적 어조가 더해짐.

3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도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 49:3-4/ '너는 내 장자요... 탁월하다마는': 만이로서 형제들보다 우월하다는 판단을 받음.
'물의 끓음(사나움) 같았은즉': 책임 있는 장자로서의 위상을 희생시킨 난폭한 행실을 책망.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더럽혔음이라도': 성적 타락으로 인한 명망의 상실.

5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도

7 그 노여움이 흑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로다

- 49:5-7/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폭력의 도구로다': 세겜 학살을 가리킴.
'내 혼아... 내 영광아...': 생명, 내적 사람을 가리킴(시 42:5; 103:1; 104:1).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들의 사악한 행동을 부정한다는 의미.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도': 짐승 학살을 의미하거나 '벽을 허물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로다': 레위 지파는 토지를 분배 받지 못했고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흡수.

8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9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 49:8-9/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이름의 언어 유희. 형제들보다 우월함.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적을 이겨 승리자의 우월한 권세에 굴복시킴.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야곱이 요셉에게 제기한 질문을 연상-'네 앞에서 절하겠느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왕권(메시아)의 상징. '새끼'/유다의 성장: 지도자와 대변인으로 드러남.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암시?
 '옹크림이 수사자 같고': 발람도 이스라엘 족속을 거의 같은 말로 묘사(민 24:9a).
- 49:10/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유다의 혈통이 될 왕조를 상징.
 - 나단의 신탁에서 다윗의 계보에 약속된 것과 같음(삼하 7:15; 시 89:33-37).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유다가 언제나 왕실 후손을 가질 것이라는 의미.
 '실로가 오시기까지': 다양한 해석, 결론은 다윗을 거쳐 예수님의 도래를 바라보는 예언.
 1) '실로'라는 마을에 이르기까지: 근거가 없음.
 2) '그에게 공물(샤이-로)이 올 때까지': 왕으로써 공물을 받는다는 의미.
 3) '실로'라는 사람이 올 때까지: 메시아가 '실로'로 계시된 경우가 없음.
 4) '이것(규)이 속한 자(셀로)'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라는 의미.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형제들을 너머 이방 나라들까지 지배력을 행사.
- 49:11-12/ '... 포도나무에 매며... 포도주에 빨며...': 포도를 엄청나게 수확하는 자로 묘사
 - 나귀가 값비싼 포도나무와 열매를 먹어 치움에도 개의치 않는 부를 암시.
 '옷을 포도주에 빨며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에 담긴 의복-호화로운 작물.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풍요를 묘사.

13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 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 49:13/ '스불론': 모세의 축복에서도 잇사갈보다 스불론이 앞섬-이스라엘 정착기와 초기 왕조 동안 우선권의 영향.
 '해변에 거주하리니': 북이스라엘의 땅에서 전략적인 위치
 - 납달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이 이뤄지는 장소(사 9:1-2)/ 나사렛, 가버나움.
 - 해상 무역과의 연관성, 모세의 축복도 바다가 스불론과 잇사갈에 주는 풍요에 관심.
 '시돈까지리로다': 두로와 함께 베니게의 해양 산업 전체를 대표.
 - 더 어울리는 영토는 아셀이지만, 스불론을 통과해야 하는 무역로를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이해.

14 잇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꿰어얹은 긴장한 나귀로다

15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

- 49:14-15/ '긴장한 나귀': 노동으로 단단하면서도 야위고 뼈만 남음.
 '꿰어 얹은': 지칠 정도로 짐을 실었기에 휴식을 취함.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예측 상태에 굴복.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폭군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어려움을 묘사(시 81:7; 사 9:3; 10:27).
 - 정착기에 비옥한 영토에서 가나안의 권력에 복종할 것을 예고.

16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17 단은 길쭉의 뱀이요 셋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18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 49:16/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정착기에 단 지파는 자기들의 이익만 좇음.
 - 무가치하고 이기적이지만 언약 국가에 속했음을 강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심판)'의 언어유희.
- 49:17/ '길쭉의 뱀이요.. 떨어지게 하리로다': '독사'는 혼자 사는 생물. 기습으로 라이스를 무너뜨린 사건을 암시.
 * 주목할 업적도 남겼지만 참담한 실패를 겪음.
 - 두 번째로 수가 많은 지파였음에도 할당된 토지를 지키지 못함.
 - 오히려 압은 성소 건설을 도왔지만 주님의 이름을 모독(레 24:11).
 - 라이스로 이주하였지만 우상의 제의를 세움.
 - 삼손은 블레셋의 압제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지만 도덕적으로 무능.
- 49:18/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이 겪을 위험을 암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할 사태에 대한 간구.

19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 49:19/ '추격을 받으나... 추격하리로다': 외적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인해 명성 있는 용사 출현(대상 5:18; 12:8; 12).